

울산 울주배 미국 수출 판촉·홍보 나서

미주 시장 정확한 분석과 소비 동향 파악...신뢰 구축 및 신규시장 개척



울산 울주군이 지난달 29일부터 6일까지 미국 LA 현지 및 하와이에서 울주배 홍보·판촉 및 미주 시장 물량 확대를 위한 업무협의를 실시한다.

울주군은 미국 정부의 대미 관세부과에 따른 소비 둔화와 안전성 검사 강화에 따른 배 수출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 현지에 '2025년 울주배 미국 수출 판촉·홍보단'을 파견했다.

특히 올해 수출 홍보단은 울주배 생산농가가 함께 참여해 미주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소비 동향을 파악한다.

또 기존 시장에 대한 신뢰 구축 및 신규시장 개척, 신제품 그린이스 첫 선전에 따른 현지시장 반응 분석 등 소비 촉진 방안을 모색한다.

홍보단은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현지시간) H-mart 뷰에 나파크 매장과 중국계 마트인

Seafood 마켓, 하와이 돈지호테 매장 등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시식 및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울주배의 우수성을 알렸다. 특히 신제품 그린이스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향후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대미 관세 부과에 따른 시장의 어려움과 중국산 배의 대미 시장 점유율 증대 및 현지 배 유통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LA 지사, NH무역 현지법인 등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홍보단은 미국 현지 유통현황에 대한 설명과 대응전략에 대해 협의하고, 북미와 캐나다 지역에서 식품 등을 공급하는 Seoultrading LA지사 바이어와 만나 시장 확대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군 관계자는 "울주배 미국 수출 판촉·홍보활동을 통해 올해 420t, 170만불의 물량 공급과 하와이 시장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호근 기자

환동해 블루카본센터 건립 및 연구탄력

사업비 400억, 포항 구룡포항에 블루카본센터 건립 중, 2028년 준공



경상북도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환동해 블루카본센터'의 설계 공모 당선작을 확정했으며, 11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다.

환동해 블루카본센터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17-13 일원에 부지 2만 1,984제곱미터(㎡), 총면적 4,523제곱미터(㎡)에 지상 3층 규모로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해 2029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

블루카본센터는 해조류 기반 블루카본 연구, 해양 탄소흡수 메커니즘 분석, 블루카본 산업화 기

술개발, 해양환경 교육·홍보 기능을 갖춘 복합 연구 거점으로 조성된다. 특히 동해안의 감태,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생태계를 중심으로 연안 생태복원과 탄소 저장 기능을 실증하는 국내 최초 블루카본 전문기관이 될 전망이다.

블루카본(Blue Carbon)은 맹그로브 숲, 염생습지, 해조초원과 같은 연안 생태계가 대기 중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자연 기반 해양탄소저감 개념으로, 국제적으로 이 세 가지 생태계가 블루카본 저장원으로 공식 인정받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갯벌과 해조

류를 새로운 블루카본 저장원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편, 2025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63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에서 '국가별 탄소배출 산정기준(Methodology Report)'에 해조류, 갯벌 등을 공식적으로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검토하여 최종 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최종 보고서에서 해조류가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되면 흡수한 탄소량을 국가의 공식 탄소 흡수량으로 계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조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블루카본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도는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맞춰 '환동해형 블루카본 모델'을 구축하고, 동해안 특유의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탄소흡수 연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윤석 기자

경남도 진해신항을 북극항로 거점으로

경남도는 5일 경남연구원과 함께 '진해신항 북극항로 진출거점 조성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를 개최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지난 8월 '진해신항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을 위한 경남 대응 방안' 세미나의 후속 논의로, 경남의 핵심 경쟁력인 조선·항만물류 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박영균 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오동호 경남연구원장,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선급, 영산대학교 등 조선·항만물류 산·학·연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경남연구원은 '북극항로 진출 거점 조성을 위한 경남도의 과제'를 발표하며, 북극항로 연계 산업 및 항만서비스 확대, 조선해양특

화단지 조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 산·학·연·관 원탁회의에서는 진해신항의 북극항로 거점 육성을 위한 추진 전략과 실행 과제를 논의했다. 각자 분야의 사업과 현안을 공유하고, 필요한 정책 지원과 기술·산업 협력 방향에 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 김기태 교수는 "북극항로가 열리면 진해신항은 글로벌 북극거래소가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 북극항로 선박·화물 등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선급 김민성 책임연구원은 "진해신항이 국제 수준의 진환경·안전 기준을 갖춘 항만으로 국제하기 위해서는 기술 신뢰성·국책 인증·안전운항 검증·사업 실증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한국선급은 시험·인증, 안전성 평가 등의 전반에 협력할 수 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도출된 정책과제들이 향후 정부의 북극항로 국가전략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

도는 향후 산·학·연·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한 북극항로 진출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오는 11월 인제대학교에서 '북극항로 개척과 스마트물류 인재 양성, 경남의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성룡 기자

민·관 협력 2차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로 우뚝!

대구광역시 5일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를 출범하고, 공공기관 유치 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구는 지난 9월 1일 시의회와 경제·인문·학계 등 민간 전문가를 위촉해 유치위원회(총 22명)를 구성하고, 11월 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앞서 유치위원회는 '대구 미래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고 결의문을 낭독하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또 '대한민국 균형성장, 대구가 진짜 합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최적지, 대구광역시' 등의 손팻말을 통해 성공적인 유치를 염원했다.

대구는 두 차례의 정책연구를 거쳐 지역 혁신성장과 신산업 육성,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 출범, 첫 회의...IBK기업은행 최우선 유치



너지를 고려해 30개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중소기업 비중이 전국 최고인 산업구조와 1차 이전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의 시너지를 고려해 IBK기업은행을 최우선 유치 대상으로 설정했다.

또한, 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

산업기술진흥원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기관도 유치 대상에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공공기관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구상하는 한편, 국회, 부처, 공공기관에 대한 유치 활동

방안을 논의하며, 대구의 교통·교육·의료 등 우수한 입지 여건을 적극 홍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대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수성구 학군을 자랑하며, 지난해의 대진학에서 전국 상위 30위 학교 중 수성구 학교가 7개나 포함될 정도로 교육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

한편, 정부는 2026년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7년부터 청사 입차 및 공동청사 건설을 통해 신속히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는 신서혁신도시 잔여 부지, 법원·검찰청 후적지, 수성알파시티 등 지역 내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정기 행정부시장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윤석 기자

영덕군 농촌활력지원센터 개관식 및 성과공유회 개최

지역 주민 간 소통 중심·교류와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의 중심 역할

경북 영덕군 농촌활력지원센터가 1년 1개월의 공사 끝에 개관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였다.

농촌활력지원센터는 농·수 특산물 홍보와 판매 등 지역 농업인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자 만남과 교류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8월 착공에 들어간 센터는 지상 2층에 총면적 989.1㎡의 규모로, 커뮤니티카페, 공유주방, 농업인 공유실, 영상편집실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관식에는 김광열 영덕군수를 비롯해 영덕군의회 김성호 의장과 의원들, 농업인 단체장들,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들과 타 지자체 신활력추진단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개관식 이후에는 지난 5년간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 육성된 28개 액션그룹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영덕군 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20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공

모사업에 선정돼 지방비 30%를 포함해 총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추진되고 있다.

'주민 스스로 新영덕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이뤄지는 이 사업은 지역의 유·무형 자원과 민간 자생 조직을 활용해 자립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 주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광열 군수는 "농촌활력지원센터가 지역 주민 간 소통의 중심이자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한다"며,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살린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덕군은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강의에 나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김향숙 강사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폭력 유형별 예방법과 대처 방안을 설명하며 조직 내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윤석 기자

2025 부산, 13일간 스포츠 대장정 성공적 마무리해!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부산시 52년 만의 종합 2위 탈환 역대급 성과



부산시는 지난 10월 31일부터 개최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선수단과 시민 등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5일 6일 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폐회식을 끝으로 부산에서 개최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13일간 대장정을 모두 마

무리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3만 8천578명, 18개국 재외한인단체 선수단 1천 544명이 참가했다.

이번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대회 비전 아래 모든 참가팀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과 희망, 감동을 선사하며 부산 체육 역사의 또 다른 장을 써 내려갔다.

지난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는 52년 만에 종합 2위 탈환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세우며 대회를 마무리했고, 뒤이어 10월 31일부터 시작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4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

했다.

또한 이번 대회는 ▲시민, 자원봉사자, 서포터스 등 숨은 주역들의 활약을 통한 지역사회 결집력 강화 ▲부산의 체육 기반 시설 개선 ▲부산 방문 선수단 및 관람객들로 인한 경제 활성화 등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최종 결과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내년 '유스 스포츠 대회' 개최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이용우 기자

울산, 울산프로야구단 창단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울산시는 5일 한국야구위원회(KBO)·울산시체육회와 함께 '한국야구위원회 퓨처스리그 울산 프로야구단(가칭) 창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프로야구 1,200만 명 관중 시대를 맞아 울산을 프로야구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시민의 여가선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허규원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김철욱 울산시체육회장을 비롯해 중앙 및 지방 언론

기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의 새로운 도전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울산시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해 초부터 문수야구장 관람석 증설 및 유스호스텔 건립사업, 「울산-한국야구위원회 가을대전(KBO Fall리그) 국제야구대회」 개최 등을 함께 추진하며, 프로야구 2군 창단을 위한 기반을 꾸준히 다져왔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공동 준비의 결실로, 울산이 본격적으로 프로야구단 창단의 실행 단계에 돌

입했음을 의미한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26년 한국야구위원회(KBO) 퓨처스리그 정규시즌 참가를 목표로 창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한국야구위원회(KBO) 및 시체육회와 함께 구단 운영계획 수립, 구단 명칭 공모, 예산 확보 및 관련 조례 개정 등 세부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프로야구 1,200만 관중 시대를 맞아 울산도 이제 프로야구의 새로운 역사를

을 준비를 마쳤다"라며, "우수한 선수를 영입해 리그 최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구단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허규원 총재는 "울산은 산업도시를 넘어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한 곳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프로야구단이 퓨처스리그를 넘어 한국 프로야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모범 구단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호근 기자